



## 첼로와 기타를 위한 오리지널 뮤직

프리드리히 버그뮐러: 녹턴/막스 바우만: 듀오 외  
 마이클 케빈 존스(첼로)/어거스틴 마루리(기타)  
 EMEC E-001, DDD

**챔버** 뮤직에서 기타 연주는 노래와 함께 재상에 퍼졌다. 이것은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 시작되는 성악과 어느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넓은 영역의 현대곡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이 음반은 풍부한 음악 유산으로 연구하고 다시 발견해야 하는 아주 가치 있는 오리지널 레퍼토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후세의 페르나도 소스, 피로 클라니와 슈베르트 같은 작곡가들이 작곡할 때 기타를 동반할 것을 염두에 두었음을 알았다. 기타는 그들의 음악성을 풍부하게 하고 이들의 작품은 20세기까지 이어져 브리튼, 팔라, 로드리고, 토르바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다른 현악기 곡에 비해 대중적이면서도 예술적으로는 조금 동원시 되어오던 기타 음악 예술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음반이다.

프리드리히 버그뮐러(1806-1874)의 <녹턴>으로 시작된다. 신선한 느낌을 주는 이 곡은 기타와 첼로를 위한 오리지널 곡으로 시작하기에 적

당하다. 1917년생인 막스 바우만은 기타를 위한 듀오 곡 작곡했다. 하나는 기타와 비올라를 위한 곡이고, 다른 음반에 담긴 기타와 첼로를 위한 작품이다. 1968년 1권 국제 기타 대회에서 이 곡 (<Xiao op.62>)가 초연되기도 했고, 니콜라스 마살, 스테판 다, 알랑 미테랄, 그리고 페드로 올라야의 곡들이 수록되어 있다.

첼리스트 마이클 케빈 존스는 에드워드 4세 학교에서 배우기 시작했으며, 1984년에는 독일 쾰른 장학금, 서고르츠키에게 지사 받았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 등 세계 각국에서 연주를 하고, 1993년 많은 연주 스페인 마드리드 출신의 어거스틴 마루리는 비테베에 그는 유업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연주 활동을 했다. 의 스웨덴시 칼리지에서 레슨을 받고 첫 음반을 발매했